

# 손흥민, 차범근과 어깨 나란히

**손흥민 유럽 무대 시즌 최다골 타이 기록**

차범근	분데스리가	리그	프리미어리그
1985~86년	시즌	2016~17년	
독일 레버쿠젠	팀	잉글랜드 토트넘	
17	정규 리그	12	
2	FA 컵	6	
경기 없음	유럽대항전	1	
<b>19골</b>	<b>시즌 합계</b>	<b>19골</b>	

  

유럽 무대 통산골	기간	2010~17년
1978~89년	다름슈타트	57
1990~91년	도르트문트	57
13	정규 리그	57
10	FA 컵	10
10	유럽대항전	9
<b>121골</b>	<b>합계</b>	<b>76골</b>

기성용 스페인 시즌(2014~15년) 시즌 합계: 7골(정규 리그: 6골)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2010~11년) 시즌 합계: 9골(정규 리그: 5골)

## 본머스전 폴타임 1골 활약 유럽리그 시즌 19호골 타이 1골 추가한 한국인 최다 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25)이 유럽리그 한국인 최다 골 타이 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6~2017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와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1-0으로 앞선 전반 19분 추가골을 넣었다.

그는 상대 진영에서 공이 튀어 오르자 손살같이 문전으로 쇄도했고, 해리 케인의 백패스를 받아 오른쪽 측면을 돌파했다.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 사각지대에서 절묘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키퍼 다리 사이를 통과하는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12호, 시즌 19호 골을 기록해 차범근 2017 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한국인 한 시즌 유럽리그 최다 골(19골)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 1골을 더 넣으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유럽 무대에서 시즌 20골을 기록하며 차범근 부위원장의 기록을 31년 만에 다시 쓰게 된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6경기, FA컵 준결승 1경기 등 최소한 7경기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추가 골을 넣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날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그동안 부상으로 이탈했던 주 공격수 해리 케인이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7골을 넣은 손흥민은 선발 출전 기회를 잃지 않았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을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2선 공격 라인에 배치했다.

토트넘은 전반 16분 무사 템벨레가 왼쪽 코너킥에서 뒤로 흘러나온 공을 잡은 뒤 침착하게 슈팅해 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불과 3분 만에 추가 골을 넣으며 포효했다.

토트넘은 후반 4분 해리 케인의 추가 골로 3-0을 만들었는데, 손흥민은 큰 점수 차에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을 지원했다. 그는 후반 8분 중앙에서 공을 가로채 돌파한 뒤 왼쪽 측면에 있던 해리 케인에게 골을 넘겨 슈팅 기회를 만들었다.

후반 11분엔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절묘한 타이밍에 크로스를 올렸는데, 골키퍼가 잡아내 아쉬움을 남겼다.

손흥민은 후반 16분에도 왼쪽 측면에서 해리 케인과 패스를 주고 받으며 상대 수비라인을 무너뜨렸다.

후반 36분 무사 템벨레의 스루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시도한 슈팅은 아쉬웠다. 손흥민 발끝에 걸린 공은 상대팀 골 구멍 바깥쪽을 때렸다.

그는 후반 추가 시간에도 코너킥을 유도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얻은 코너킥 이후 공격에서 빈센트 안선의 득점으로 4-0을 만들었다. 토트넘은 홈 12연승을 기록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왼쪽)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본머스와 경기에서 전반 19분 팀의 두번째 골을 성공시킨 후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폴타임 출전한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은 본머스를 4-0으로 대파하며 홈 12연승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원정 첫 승 언제쯤

### 광주 FC, 수원과 무승부 K리그 클래식 6R

■ 정규라운드 순위 (16일 현재)

순위	팀	경기수	승점
1	전북	6	14
2	포항	6	13
3	제주	6	11
4	서울	6	9
5	강원	6	8
6	상주	6	8
7	울산	6	8
8	대구	6	6
9	광주	6	6
10	수원	6	5
11	전남	6	3
12	인천	6	3

광주 FC의 원정 첫 승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광주 FC가 16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7 K리그 클래식 6라운드의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원정 첫 승을 노렸던 광주는 득점에 실패, 올 시즌 4차례 원정에서 2무2패를 기록하게 됐다. 4라운드 제주전에 이어 3경기 연속 무승부이기도 하다.

수원이 전반 초반부터 61%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광주를 봉쇄했다. 전반 7분에는 광주의 골망이 출렁거리기도 했다. 수원 김민우의 슈팅이 골대를 갈랐지만 앞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광주가 한숨 돌렸다.

전반 25분 코너킥 상황에서 광주 김영민이 길게 넣어진 공을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빗나가는 등 광주는 이렇다 할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한 채 전반전을 끝냈다.

후반 6분 광주 조주영이 역습 찬스에서 수원 오른쪽 진영을 치고 오르며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수원 수비수 구자룡이 조주영을 붙잡으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프리킥이 주어졌지만 광주는 분위기를 잊지 못했다. 후반 17분에 나온 손흥민의 슈팅은 수원 골키퍼 신화용에 막혔다.

광주도 선방으로 맞섰다. 후반 18분 혼전 문전 상황에서 광주 골키퍼 최봉진이 염기훈의 왼발을 저지하면서 슈퍼 세이브를 장식했다.

이후 양팀은 교체 카드를 사용해 분위기가 반전되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하면서 경기는 0-0 무승부로 종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천적을 꺾다...KIA, 넥센전 스윙 '5연승'

<1172일만에>



### 7-6 역전승 1위 질주 15년만에 10승 선착

'호랑이 군단'의 1위 질주가 계속됐다. KIA 타이거즈가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즌 3차전에서 7-6 역전승을 거뒀다. 팻던-양현종을 앞세워 넥센전 위닝시리즈를 완성했던 KIA는 마지막 대결에서도 승리를 쟁기면서 시즌 첫 스윙을 기록했다.

넥센에 지독한 열세를 보였던 KIA는 2012년 8월7~9일 이후 1711일 만에 스윙을 기록하며 '넥센 포비아'에서 탈출했다.

지난 14~15일은 선발의 힘으로 만든 승리였다. 14일 선발로 나온 팻던이 9이닝 2실점 완투승으로 자신의 한국 무대 첫 승을 책임졌고, 15일에는 양현종이 7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3연승을 달리는 등 선발 대결에서 KIA가 웃었다.

16일은 강해진 타선의 힘이 승리를 불렀다. 이날 홍건희를 선발로 내세운 KIA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3번 김주찬, 5번 나지연을 빼고 신중길-최형우-안치홍으로

#### ■ 2017 KBO 리그 순위 (4월 16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14	11	0	3	0.786	0.0
2	롯데	14	9	0	5	0.643	2.0
2	kt	14	9	0	5	0.643	2.0
4	LG	14	8	0	6	0.571	3.0
5	NC	14	7	0	7	0.500	4.0
5	SK	14	7	0	7	0.500	4.0
7	두산	14	6	0	8	0.429	5.0
8	넥센	14	5	0	9	0.357	6.0
8	한화	14	5	0	9	0.357	6.0
10	삼성	14	3	0	11	0.214	8.0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했다. 그리고 장영·몸살 증세로 전날 처음 선발에서 빠졌던 김선빈도 스타팅에서 제외하면서 100%의 전력으로 타선을 꾸리지 못했다.

그러나 전날 멀타히트를 기록했던 버나디나가 1회부터 불넷으로 걸어나간 뒤 도루에 성공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KIA는 이명기의 희생번트와 신중길의 희생플라이로 확실하게 1점을 만들었다. 홍건희의 난조로 4회 1-3 역전을 허용한 뒤 6회에도 손영민의 2실점이 기록되면서 1-5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6회에도 버나디나가 움직이면서 잠잠하던 공격이 깨어났다. 잘 던지던 신재영을 상대로 버나디나가 이명기가 연속 안타를 만들었다. 신중길의 땅볼로 1사 1·3루, 최

형우가 중전안타로 타점을 올렸다. 안치홍의 연속 안타로 1점을 보탠 KIA는 김민식의 적시타로 4-5까지 추격했다.

7회에는 안치홍이 기세에 이겼다. 1사 1·3루에서 대수비로 나왔던 김선빈이 첫 타석에 섰다. 2루수 정면으로 공이 향하면서 투아웃이 됐지만 타석에 최형우가 있었다. 넥센은 최형우를 거르며 안치홍과의 승부를 선택했다.

결과는 KIA의 승리였다. 안치홍은 김상수를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6-5로 승부를 뒤집었다.

8회 버나디나의 희생플라이로 7-5까지 만든 KIA는 9회 수비에서 연승행진의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1사에서 김윤동이 투입됐지만 내야 안타와 몸에 맞는 볼, 불넷으로 만루를 허용했다. 김하성의 중견수 플라이로 7-6까지 쫓긴 KIA는 한승혁을 마운드에 올렸다. 한승혁은 연달아 볼 3개를 던지며 위기를 맞았지만 김윤빈을 2루수 땅볼로 돌려세우면서 5연승과 넥센전 스윙을 완성했다. KIA는 앞서 15일 5-2 승리로 2002년 이후 15년 만에 10승에 선착한 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역전 적시타를 때리며 5연승의 주역이 된 안치홍은 "주자가 있으면 더 집중된다. 선배들에게 농담으로 주자가 나가주라고 부탁도 한다(웃음). 출루가 중요한 선두타자 상황이 아니면 공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 "김지성, 100점 주려 했는데 수비 때문에 0점"

### 덕아웃 T 특특

▲KIA팬이면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 마운드 밖에서도 바쁜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이다. 양현종은 성적만이나 높은 인기를 과시하면서 사인 공세를 많이 받는 선수 중 한 명이다. 16일에도 사인 요청을 받은 양현종은 "KIA 팬이면 제 사인 하나씩 있지 않아요?"라며 사인에 응했다. 그만큼 사인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지만 표정은 밝았다. 양현종은 지난 15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며 시즌 3승에 성공했다. "넥센 타자들이 공격적이어서 공격적으로 맞섰다"고 언급한 양현종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달라진 것은 운이다. 운이 많이 따른 것 같다(웃음)"며 3연승 비결을 언급했다.

▲못 나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 혹독한 우익수 신고식을 지냈던 이명기다. 지난 7일 SK와의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이명기는 지난 12일 KIA 원정에서 처음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이날 삼진 두 개 포함 5

타석에서 버타로 몰려난 이명기는 무엇보다 수비에서 포구 실수를 저지르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SK 시절 좌익수로 뛰었던 이명기에게는 낯선 포지션. 하지만 13일 좋은 수비를 잇달아 했다"고 웃었다. 김지성은 이날 8회 2사 2루에서 거건한 타구를 늦게 처리하면서 내야안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김지성은 16일에는 윤석민의 갑작스러운 안타 성 타구를 땅볼로 둔갑시키는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

▲100점이었는데 0점이 됐다 = 공격에서 100점, 수비에서 0점을 받은 김지성이다. 지난 15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김선빈이 장영·몸살 증세로 빠지면서 김지성이 대신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들어갔다. 지난해 LG에서 방출된 뒤 KIA에 입단한 김지성은 팬들에게도 낯선 선수. 우려와 달리 이날 김지성은 첫 타석에서 기습 번트 실패 뒤 두 번째 타석에서 우전 안타 그리고 세 번째 타석에는 좌측 담장 넘기는 홈런을 터트리는 활약을 했다. 이 홈런은 708일 만에 나온 김지성의 생애 두 번째 홈런

이었다. 16일 김지성에 대해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선두타자로 나와 기습번트 시도도 하고 홈런도 때리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 100점을 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수비 때문에 0점이 됐다"고 웃었다. 김지성은 이날 8회 2사 2루에서 거건한 타구를 늦게 처리하면서 내야안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김지성은 16일에는 윤석민의 갑작스러운 안타 성 타구를 땅볼로 둔갑시키는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

▲하이파이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 16일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뒤 KIA 덕아웃에는 웃음과 여유가 넘쳤다. 후배들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던 최형우는 "우리 하이파이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면서 웃었다. KIA는 경기가 승리로 끝날 경우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이 도열해 하이파이브를 한다. KIA는 15일 넥센전 5-2 승리로 올 시즌 가장 먼저 10승 고지에 오른 팀이 됐다. 10승 선착은 지난 2002년 이후 15년 만이다. 또 넥센을 상대로는 1711일 만에 스윙을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승리를 쌓아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